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202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202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NTENTS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04

PART.01 사회적기업 개요

1. 사회적기업 이해 07
2. 사회적기업 연혁 08
3. 사회적기업 현황 10
4. 예비사회적기업 12
5.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14

PART.02 사회적기업 인증

1. 인증 목적 24
2. 인증 요건 24
3. 인증 절차 27
4. 2020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28

PART.03 사회적기업 지원

1. 사회적기업 지원 개요 30
2. 정부 지원 부문 32
3. 공공·민간 기관 지원 부문 40

PART.04 사회적기업 유형

1. 일자리 제공형 44
2. 사회서비스 제공형 46
3. 혼합형 48
4. 지역사회공헌형 50
5. 기타(창의·혁신)형 53

PART.05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루트에너지 56
㈜베이비플래너 64
㈜스펠크리에이티브 72
㈜암흑 80
㈜상상 88
㈜코끼리공장 96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104
협동조합 온리 112
㈜알로하그린 120

사회적기업 현황 (2019. 12.)

2019년 12월까지, 인증 사회적기업 총 **2,435** 개소 활동 중

지역별 현황

(2019년 12월 말 기준,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증수	463 19.00%	115 4.70%	84 3.40%	148 6.10%	113 4.60%	68 2.80%	85 3.50%	409 16.80%	133 5.50%	102 4.20%	99 4.10%	144 5.90%	132 5.40%	155 6.40%	117 4.80%	55 2.30%	13 0.50%
예비출신	190	77	57	96	74	54	62	270	101	70	84	112	89	132	84	43	8

설립경로별 현황*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 작업장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회적) 협동조합	기 타
1,606**	179	46	185	9	329	539

* 설립경로 중복 포함, **부처형 213개소(부처 107, 지역+부처106)

조직형태별 현황

비 영 리 567개소 (23.3%)					영 리 1,868개소 (76.7%)			
민법상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법인 및 단체*	상법상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영농(어) 조합법인	협동조합
281 11.60%	78 3.20%	74 3.00%	132 5.40%	2 0.10%	1,487 61.10%	86 3.50%	98 4.00%	197 8.10%

* 기타 법인 및 단체(학교법인 1개소, 산학협력단 내 사업단 1개소)

사회적목적 유형별 현황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1,629(66.9%)	150(6.1%)	155(6.4%)	194(8.0%)	307(12.6%)

서비스 분야별 현황

문화, 예술	청소	교육	사회복지	환경	간병, 가사지원	관광, 운동	보건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문화재	고용	기타*
265 10.90%	226 9.30%	213 8.70%	120 4.90%	117 4.80%	99 4.10%	60 2.50%	18 0.70%	14 0.60%	10 0.40%	10 0.40%	10 0.40%	1,273 52.30%

* 식품제조·판매(식품,음료,도시락,반찬 등) 331개, 생활용품 제조·판매(화장품,비누 등) 202개 등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2019. 12.)

2019년 12월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총 **2,413** 개소 활동 중

*중복 201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984** 개

부처별 지정 현황

(2019년 12월 말 기준, 개소)

구분	교육부	농림축산 식품부	문화재청	보건 복지부	산림청	여성 가족부	통일부	환경부	국토 교통부	고용 노동부	문화체육 관광부
지정수	0	38	10	54	117	47	8	28	102	524	56

사회적 목적 유형별 현황

구분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지정수	91	49	113	15	716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1,429** 개 소

지역별 지정 현황

(2019년 12월 말 기준,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지정수	225	78	62	58	22	66	42	268	106	67	50	73	68	99	61	71	13

사회적 목적 유형별 현황

구분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지정수	265	190	434	61	479

사회적 기업 / 개요

1. 사회적기업 이해

2. 사회적기업 연혁

3. 사회적기업 현황

4. 예비사회적기업

5.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PART. 01

1. 사회적기업 이해

1)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더 쉽게 사회적기업 이해하기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법적인 의미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제 1항)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회사만 사회적기업인가요?

사회적기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무분별하게 명칭을 사용하는데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9조: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사회적기업 연혁

년도	내용
1945년 이후	**· 생산자협동조합 등 자생적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조직**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사회적경제조직은 해방 이후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나갑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각 지역 단위로 만들어졌던 의료협동조합은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97년	**·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국민 경제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근로 및 자활,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이 질적 수준이 낮고, 지속가능성이 없는 일자리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출처: 전국실업극복 단체연대 외, 2005)
2007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와 자활 정책 연구모임과 같은 연구자들이 제안했던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법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그 결과 2007년 1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TIP 외국의 법제화 현황은 어떤가요?
	국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공포되던 2007년의 유럽은 이미 △사회적 협동조합(이탈리아) △사회적 목적 기업(벨기에) △사회연대 협동조합(포르투갈) △사회적 목적 협동조합(스페인) △집단적 이익 협동조합(프랑스) △지역사회이익 기업(영국) 등 법제화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 제 1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단계적 (예비)사회적기업 전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년도	내용
2011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었습니다.(2개 본부, 6개팀)
2012년	**· 제 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과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7년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사업개발비 지원 범위 확대**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국한 되었던 사업개발비 지원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 제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 체계 조성,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3. 사회적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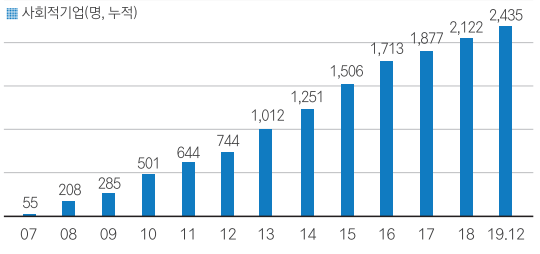
1) 양적·질적 성장

사회적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개척하고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해왔습니다. 2007년 55개소 인증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기준 2,43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활동 중입니다.

또한, 지난 10여 년동안 현장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매출액과 같은 경영실적 개선 등 질적 성과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별 기업 단위의 성장을 넘어, 지역과 업종 단위의 다양한 협력을 토대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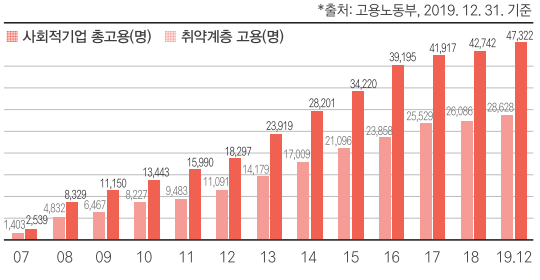
인증 사회적기업 수

*출처: 고용노동부, 2019. 12. 31. 기준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2019. 12. 31. 기준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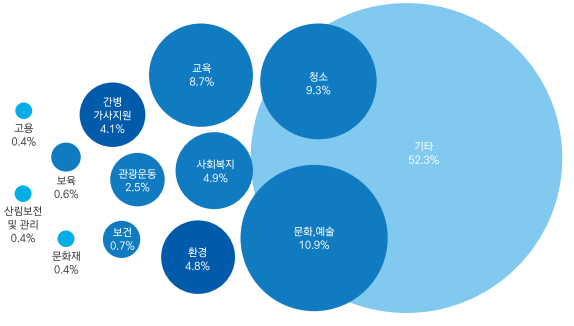
2019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47,322명에 달하며,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28,628명(60.5%)에 달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경력단절여성·고령자 등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업체가 1개 기업 평균 5.4명을 고용하는데 비해, 사회적기업은 1개 기업당 평균 19.4명을 고용하며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19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율도 97.6%에 달해서 일반 사업체에 비해 높고(평균 89.1%, '17년 기준), 높은 일자리 안정성으로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바로 사회적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 외연 확장

세상이 변하는 속도만큼이나, 정부나 시장의 힘만으로는 풀기 힘든 사회문제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며, 다양한 방면으로 외연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분야



문화 예술	청소	교육	사회복지	환경	간병 가사지원	관광 운동	보건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문화재	고용	기타
265 (10.9%)	226 (9.3%)	213 (8.7%)	120 (4.9%)	117 (4.8%)	99 (4.1%)	60 (2.5%)	18 (0.7%)	14 (0.6%)	10 (0.4%)	10 (0.4%)	10 (0.4%)	1,273 (52.3%)

*기타-제조·판매업, 식품업(식음료, 도시락 등), 생활용품(화장품, 비누 등) 등

4. 예비사회적기업

1) 제도 개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 지침
요건	① 조직 형태	① 조직 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④ -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사회적기업은 특정 가치관을 지닌 기업인가요?

A. 빈부격차 확대,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 것은 수많은 서구 선진국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선택지였습니다. 국가 재정은 고갈되는 반면 사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늘려왔습니다. 즉 사회적기업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며,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실업·빈곤 등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Q. 사회적기업은 정부 보조금 지원이 끝나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나요?

A. 200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증 받은 2,865개소 중에서 2,435개가 활동 중으로 사회적기업 전체 생존율은 85%에 이릅니다. 인증 이후 3년 이상 계속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3년 생존율은 92.1%로 지속가능성도 높습니다.(2016년 인증 받은 기업의 2019년 말 생존율, '19년말 기준) 이는 일반기업의 3년 생존율인 42.5%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로,(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17년말 기준), 우려와 달리 사회적기업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Q.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사회적기업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했다면, 소셜벤처는 법적 규율을 통한 인증 제도 도입, 인증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같은 제도화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벤처기업과는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기업의 제도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증제도를 등록제로 개편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국회 제출 '19.8월)

5.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불평등, 양극화, 환경파괴 등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해온 과정 속에서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입니다. 이윤 극대화라는 시장경제 논리를 따르던 세상은, 사회적 가치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의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1) 사회적경제의 정의

-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 국가·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①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②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③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④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OECD	EU	캐나다 퀘벡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의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결제활동 *구성원 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경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2) 사회적경제의 특징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 경영을 통해 운영

영리 추구보다 구성원간 이익 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시대의 리더가 말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다. 우리 경제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이윤'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격려사 中)-

"사회적가치를 다른 말로 하면 '남의 행복'이다. 가치를 만들어 타인을 행복하게 하면, 내 인생도 가치가 생기고 행복해진다. 사회적가치 창출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외계층을 줄여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움직임이다."

-최태원 SK 회장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이전 개원식 발언 中)-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박애와 연대'의 시민 사회적 가치와 '경쟁과 효율'의 시장원리를 접목한 사회적경제 방식이 더해질때 우리가 꿈꾸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영수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인사말 中)-

"공자의 말 중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 있다.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위기에 대응하며 도전 과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뜻한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로 향해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도전한 과정이 의미 있으면 그 결과 또한 저절로 중요해진다. 사회적 기업가라면 도전과 과정을 즐겨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로운넷 인터뷰 中)-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목표와 환경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의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의제 2030의 실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폴 래드 유엔사회개발연구소장(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中)-

3) 사회적경제기업 소개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하되, 공동체의 보편적인 이익과 우리 사회 그리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기업입니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비해, 사회적경제기업은 민주적인 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 4대 사회적경제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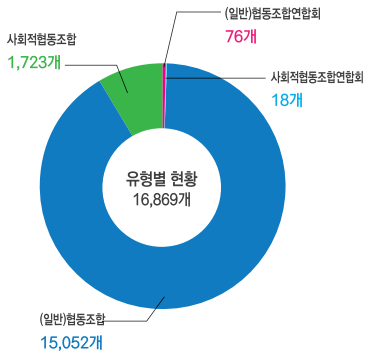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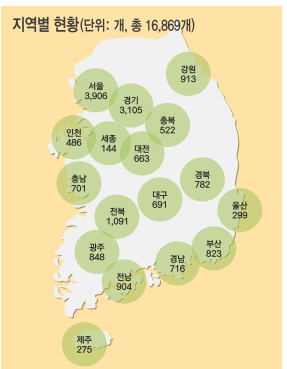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현황은 p4~5 참고

• **협동조합(기획재정부)** :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하나인 사회적협동조합은 그중에서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가 목적이 아닌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 설립현황





*출처: 기획재정부(2019년 12월말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부처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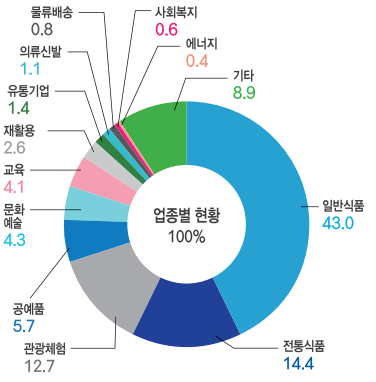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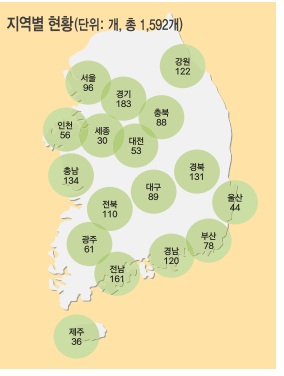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연합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387	360	274	153	111	18	79	64	57	49
산림청	**여성가족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44	44	43	22	5	5	4	4	3	3
기상청	**법무부**	**소방청**	**통일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	**특허청**	**총계**	
2	2	2	2	1	1	1	1	1,741	

*출처: 기획재정부(2019년 12월말 기준)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마을기업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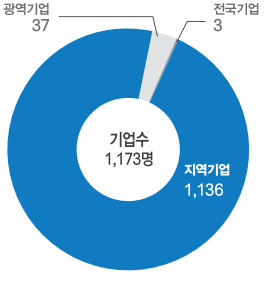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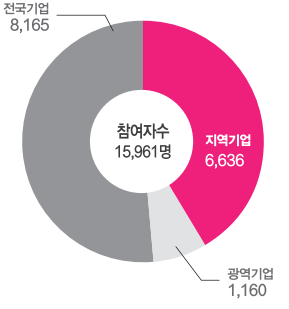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19년 6월 기준)

• **자활기업(보건복지부)**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자활기업 운영현황





*출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통계데이터(2019.12.31.기준)

사회적기업 정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www.ksenet.org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며, 사회적경제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연대조직이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www.ikose.or.kr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기업·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 유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2008년 발족해 현재 1,000여 개가 회원조직으로 참여한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전국조직으로 2019년 4월 발족했다. 9개 지역별 협의체와 3개 부문별 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 등으로 이뤄진 개별법 협동조합 간 협의체다.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발족해 1,400여 개 마을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7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자활기업협회
자활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직력을 강화하여 자활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8년 발족했다. 자활기업의 대표조직으로 12개 지역협회와 4개 업종협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350여개 자활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원조직 네트워크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전국협의회
중앙부처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단위 지원기관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국네트워크 http://knsec.or.kr
YMCA, YW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2011년 12월 발족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정책 환경 개선, 시민의식 개선 등의 과제수행을 위해 사회적경제 당사자뿐 아니라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경제단체, 봉사단체 등 다양한 조직들이 연대하여 조직되었다.

임팩트얼라이언스 http://impactallies.org
한국 최초의 소셜 임팩트 생태계 연대체로 2019년 9월 발족했다.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 조성'이라는 미션을 갖고 서울 성동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셜벤처 및 지원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을 준비하고, 현재 총 96개사가 회원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언론

사회적경제언론인 포럼
언론인 스스로 사회적경제 연구를 위한 모임으로 2013년 3월 만들어졌다. 사회적경제를 공부하고 지혜를 나누며,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장을 만들어 공동저술, 공동기획 등 사회적경제 저변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머니투데이 쿨머니 http://coolmoney.mt.co.kr
머니투데이가 운영하는 좋은 자본을 지향하고 사회책임경영, 사회적경제, 시민사회기금 등에 대해 다루는 웹미디어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
조선일보 공익섹션으로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등 공익 영역의 뉴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전하는 미디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heri.kr

한겨레 미디어를 기반으로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경제 등을 연구하고 기획보도하는 전문 싱크탱크다.

이로운넷 www.eroun.net

사회적경제와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개인을 집중 다루는 사회적경제 전문 인터넷 미디어다. 경제지인 머니투데이 자회사로, 2017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라이프인 www.lifein.news

사회적경제와 생활·안전 문제를 다루는 인터넷 미디어이자,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홍보채널

뉴스레터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고자 사회적경제 소식을 온라인 뉴스레터로 만들어 격주 발행한다. 사회적경제 이슈, 지역소식, 우수사례, 각종 정보 등을 담아 전달한다.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플러스친구

국내외 사회적경제 소개, 각종 지원 정보 등을 수록하는 채널이다.

기타 외부 채널

오렌지레터

슬로워크가 국내 소셜섹터의 소식(행사, 뉴스, 채용, 지원정보 등)을 매주 뉴스레터 형태로 발송하는 홍보채널이다.

사회적 기업 / 인증

1. 인증 목적

2. 인증 요건

3. 인증 절차

4. 2020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PART. 02

1. 인증 목적

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①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
② 경영 등에 있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이 가능토록 기반 조성
③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경영·판로 등을 지원하여 육성
④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 방지

2. 인증 요건

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법률에서 규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사단법인, 재단법인)
- 「상법」에 따른 회사(주식·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른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 어업회사법인,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적기업에서 "유급근로자"란,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 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해야 합니다.('19년 지침개정)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가장 중요한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사회적 목적의 실현"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하게 심사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인증 신청 기업은 다섯 가지 유형 중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전월 기준 6개월(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실적을 확인하게 됩니다.('19년 시행령 개정) 실적 증명 방법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적합한 방법을 통해 증빙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영리기업은 주주와 대표자 등 지분 소유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지분 소유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지역 관계자, 외부 전문가, 후원자, 연계기업 등 기업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의사결정 구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회의체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노무비의 50% 이상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9년 시행령 개정) 만약 이 유급근로자의 지난 6개월 급여가 1,000만 원이라면 지난 6개월간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사회적 목적"의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회적 목적의 범위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좋은 품질의 영양을 공급하고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요거트를 판매하는 회사가 더 많은 아이에게 요거트를 공급하기 위해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신축 공장에 투자하는 등의 행위가 그 예입니다.

3.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인증 신청 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 요건과 특성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연중 상시 접수제로 운영됩니다. 심사는 격월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1. 인증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주관)
↓	
2.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	
3. 인증 신청 및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 수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	
5. 현장 실사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7. 검토 보고자료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	
8. 인증 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육성전문위원회 주관)
↓	
9. 인증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인증서 전산발급('20.3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2. 신청 및 접수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3. 심사 및 선정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4. 2020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05	033-749-3900	gwcs0524@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070-4763-0120	pns@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66-7970	0303-0945-7945	moducoop@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053-267-5003	se@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062-384-1137	ses@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053-217-5003	ucsr@hanmail.net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070-8787-7000	c-cmail@hanmail.net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050-4926-0028	info@rise.or.kr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joyfulunion@naver.com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052-267-6177	ulsan@sescoo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032-446-9492	032-421-9585	inseca@daum.net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2-9588	0303-0955-9571	sstreetree@naver.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063-213-2244	063-213-2245	jbse2019@gmail.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064-755-4843	jejusen2015@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041-415-2013	cnse1212@gmail.com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043-222-9001	043-223-9201	cbse@hanmail.net

사회적 기업 / 지원

1. 사회적기업 지원 개요
2. 정부 지원 부문
3. 공공·민간 기관 지원 부문

PART. 03

1. 사회적기업 지원 개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책에서는 '정부 지원 부문'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민간이 연계하여 조성된 '민간 지원 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률상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②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③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④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⑤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보험료 지원
⑥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자문 비용 등 재정 지원

예비/인증 여부에 따른 지원의 종류

구분	사업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직접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	○
	전문인력 지원사업	○	○
간접지원	사업개발비	○	○
	경영컨설팅	○	○
	세제 지원	○	×
	사회보험료 지원	○	×
	융자 지원	○	○
	공공기관 우선 구매	○	×

정부가 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야 하나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시장 또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가치와 성과는 여러 국내·외 사례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되었습니다.
정부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고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정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성책을 단순한 '지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고 힘을 실어준다면,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제2의 도약을 일궈내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사회적기업 정부 지원 한 눈에 보기

구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	• 대학 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150만 원 상당의 활동비 지원 및 멘토링 제공
	소셜벤처 경연대회	• 총 2억 원의 상금,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연계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창업 준비팀, 창업 2년 미만의 초기 창업팀, 재도전 창업팀
		•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사후지원 등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및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공간 제공, 상시 상담, 교육, 자원 연계, 협업 지원 등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는 인증사회적 기업만 해당	일자리창출사업	•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최저 임금 수준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전문인력 지원사업	•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단, 유급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
	사업 개발비	• R&D, 마케팅, 브랜딩 등 경상적 사업비 지원(사회적기업 연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연 5천만 원 이내. 단,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 대상 확대)
	경영 컨설팅	• 전문컨설팅 기관으로부터의 기술 지원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 4년 간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세제 지원*	•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사회적기업에 보호된 시장을 제공
	판로 지원	• 상품 진단 및 개선 지원 • 홈쇼핑, 백화점, 박람회 및 e-store 36.5+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강화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을 통한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확산
	금융 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정책 자금으로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등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민간 자원 연계 프로그램	• 공공-민간의 연계 기반 조성, 참여 기업 발굴 등
기타	융자 지원	• 다양한 융자제도를 연계, 지원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확장
	프로보노 지원	•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경영 자문 또는 지역사회 협력 연계

2. 정부 지원 부문

1)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①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

청년층에 소셜벤처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우수한 소셜벤처 활동 계획을 보유한 대학 동아리를 발굴하여 관련 프로젝트 실행 및 학습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비 지원, 워크숍 및 멘토링 캠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셜벤처 경연대회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대회입니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크게 아이디어 부문에 청소년/대학생, 창업연계 부문에 일반창업/글로벌성장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가 진행되며, 2019년까지 총 11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과정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③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을 발굴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며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 모집하여 1년 간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현황

연번	구분	특화분야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서울 인천 경기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 산학관 5층 LG소셜캠퍼스	02-2280-3368
2			사단법인 피피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7길 75, B1(신정동, 이든채)	070-4610-5684
3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032-446-9492
4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5		재도전	(재)함께일하는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 함께일하는재단 5층	02-330-0735
6		관광	재단법인 밴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센터 2층 206호	070-5099-5040~1
7		글로벌·글로벌재도전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302호	02-2665-0718
8		여성	사회적협동조합 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육성사업룸	070-7601-6006
9		IT·도시재생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13길 51	070-5057-3620
10	강원 충청	특산물제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033-650-3318
11			(사)강원도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105호	033-749-3951~3
12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3, 3~4층	041-415-2012
13			(사)충북시민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 BYC빌딩 2층	043-273-0321
14			한남대학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행정관 2층 한남사회혁신원 운영지원팀	042-629-7169
15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79번길 47, 101호	042-320-9540
16	대구 경북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과학생명융합대학 6호관 2403호	053-850-4779
17		농산촌형	(재)경북창업성장 사회적재단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산학협력관	054-650-0150
18			(사)공동체 디자인연구소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02, 2층	053-957-5556
19		기술·제조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벤처창업관 313호	054-478-6750
20	부산 울산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86-6379
21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2길 11(육성사업센터)	052-700-6176
22		디자인·제조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20, 해운대기술교육원 2층	051-745-3203
23		도시재생	(사)부산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150 1층	051-803-8388
24		재도전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7, 2층	051-504-0275
25	광주 전라 제주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광주대학교 인성관 3층 사회적기업사업단	062-670-2794
26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4747
27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3층	061-281-0201
28		재도전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4-5층	063-711-2110
29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064-726-4843
30	농어촌·산림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8-2, 2층	043-264-9979
31	도시재생		㈜안테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428-1, 2층	02-2069-1667
32	협동조합형		HBM사회적협동조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7,인경빌딩 2층	02-6930-5860
33	재도전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2층 200호	070-7601-3007

④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등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센터입니다. 매년 12~1월 중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사무공간, 상시 상담, 교육, 네트워킹, 협업,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강좌를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성동구, 영등포구), 경기, 강원, 대전, 전북,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위치 및 연락처

지역	주소	전화번호
서울1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 9층	02-467-2510
서울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6층	02-3667-8407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 6층	031-757-2501
강원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대학원관 1, 2층	033-748-8661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 눈높이사옥 3, 4층	042-489-579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 DNB 빌딩 5층~6층	063-223-2503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 5, 6층	062-946-2166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스테이션아울렛 10, 11층	053-431-9821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극동방송빌딩 7, 8층	052-276-2505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사옥 4,5층	051-753-2501

2)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①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인건비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최대 5년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전략기획,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단, 유급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 200만 원(또는 250만 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일정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전문 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①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단순 경리·서무는 제외)
②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관련, 무역, 정보·통신·컴퓨터, MD(상품기획)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해당 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③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④ 항목 "①" 각 분야 및 경제·경영학 관련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③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 진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등 경상적인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회적기업은 연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5천만 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신규 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 모델 발굴 비용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2018년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④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써 자립 경영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회계, 시장개척, 홍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기술 지원과 경영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컨설팅 제공업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컨설팅 수행계획서의 "목적 및 추진의지, 수행방안,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선별 지원합니다. 또한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이 컨설팅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컨설팅기관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컨설팅 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인가요?

①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 또는 홍보, 마케팅, 디자인, 제품생산, 정보통신, 유통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② 상근 컨설턴트를 3인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③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④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실적이 1년 이상인 민간단체
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⑥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또는 연구기관

⑤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일부를 4년간 지원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제한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특별한 심사절차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정부부처나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 기관, 장기요양보험 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②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된 기업
③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 근로자 허위 고용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기업
※ 부정수급 기업은 영구 참여 제한하고 부정수급한 사회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⑥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향후 2년 50%를 감면해줍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는 50%를, 재산세는 25%를 감면해줍니다.

※인증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 소득이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 감면 + 그 후 2년간 50% 감면

왜 사회적기업에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하나요?

사회적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공급 등의 기능과 역할을 대행 또는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정부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⑦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을 우선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 상품을 먼저 고려해 구매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초 해당연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계획과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매년 이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응원 하는 국가차원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예시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에서 주로 구매하는 사회적기업 제품 품목으로는 기념품, 도시락, 청소, 인쇄, 사무용품, 문화공연, 각종 체험 등이 있습니다.

⑧ 판로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판로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유통채널에 입점 및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과 TV홈쇼핑·백화점 및 온라인 유통채널 등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대형 유통채널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전국 90개의('19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스토어 36.5)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 사업별 세부 내용

상품·서비스 발굴 및 사회적 가치 확산	• 판로지원 대상별 맞춤형 사업 안내 • 신규 사회적경제 기업별 상품·서비스 DB 기초 조사 • 바이소셜 캠페인 등 대국민 사회가치소비 홍보·인식개선
상품 경쟁력 강화	• 유통 채널 입점 요건 충족을 위한 기본·중점 상품 개선(상품 사진 촬영, 패키지 디자인 및 홍보물 개선 등) • 개선 완료된 상품 대상 내·외부 유통 채널을 활용해 입점 연계 지원
유통채널 진출 강화	• TV홈쇼핑, 백화점, 특별전 개최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진출 지원 • 스토어36.5 모니터링 및 운영 자문, 수발주 지원, 브랜드 홍보물, 프로모션 등 지원
판로지원 인프라구축 및 확산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36.5+)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판로 확대 및 이용자 대상 공공조달 등 맞춤형 정보 제공 •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지원) • 판로지원 정보 제공 및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제도 개선

⑨ 금융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정책 자금으로 미소금융(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신청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다각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세부 내용

사업명	주체	내용
미소금융	서민금융 진흥원	•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임대차보증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 www.kinfa.or.kr / Tel. 1397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 www.kosmes.or.kr / Tel. 1357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신용보증기금	• 정부 핵심 정책 분야 지원 시책으로 사회적기업, 1인 창조기업 등에 신용보증 공급 • www.kodit.co.kr / Tel. 1588-6565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 보증	지역신용 보증재단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상시 특별 보증 운영 • www.koreg.or.kr / Tel. 1588-7365

⑩ 융자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는 중소기업정책자금, 미소금융 등 타 부처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합니다. 타 부처 융자제도는 사업별로 모두 신청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시 자격과 융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⑪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확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학교 교육부터 누구나 사회적경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창업 입문 과정과 이러닝 콘텐츠를 운영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생태계 육성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사회적경제 주요 교육 사업

대상	주요 사업	내용
학교, 청소년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 및 자유학기제	청소년의 사회적경제 진로 탐색 및 사회적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체험 캠프 진행
교사	사회적경제 직무연수	학교협동조합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경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시·도교육청 교사 직무연수 운영
대학생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대학생 및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를 미래의 사회적경제계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제공
창업 희망자	창업입문과정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한 기본 소양 및 전문적인 지식 함양
종사자	맞춤형 아카데미	사회적경제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실습활동으로 구성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강사 양성 과정	분야별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교수법, 교안 제작, 모의 강의 시연 진행
	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과정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기획·운영

⑫ 프로보노 지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 자문 또는 지역사회 협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능기부뱅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전문가 그룹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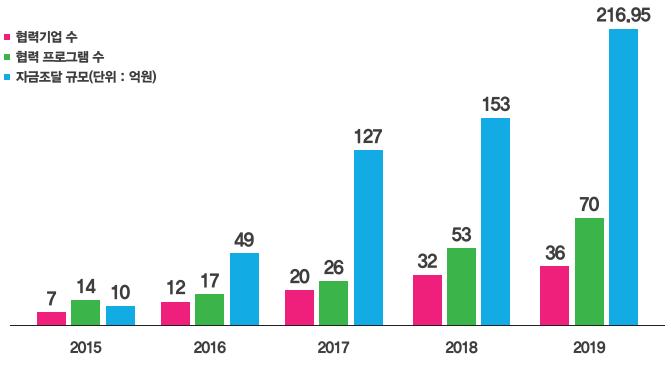
3. 공공·민간 기관 지원 부문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공 · 민간기관 자원 연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공공·민간기관의 사회공헌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회공헌 사업 유도, 연계사업 모델 발굴 및 사회공헌 사업 기획·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관의 수요가 반영된 자원연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사업명: 소셜브릿지 공모전)'을 실시, 성과 발표회를 통한 소통과 사업 매칭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진흥원 공공 · 민간기관 협력 실적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창업·설립 등 육성뿐만 아니라, 판로·네트워크 활성화 등 성장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민간기관(기업)의 자원과 사회적경제기업 매칭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이 15가지로 분류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물품 구매, ▲AWARD 유형, ▲청년창업지원, ▲유통채널 제공, ▲경쟁력 강화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 직접 설립, ▲물품기부,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기술 지원, ▲사회적기업 홍보지원, ▲은퇴전문가 노하우 전수, ▲사회적기업 자조, ▲금융, 투자유형

진흥원 자원연계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2) 대표적인 민간 지원 프로그램

①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후원하는 다자간 협력 사업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지난 8년간 233명의 사회적기업가를 발굴·육성하였으며, 1,42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② KDB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KDB나눔재단이 지원·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7개 내외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선발하며, 활동기간 동안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사후관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③ LG소셜캠퍼스

LG전자와 LG화학은 혁신적이고 공익적인 친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최대 5,000만원, 대출은 최대 1억 원)을 포함, 사업 안정화를 위한 공간 지원,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오는 2021년까지 누적 160억원을 투자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④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

SK·사회적가치연구원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에 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지원과 생태계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명확한 사회적 미션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성장·확장 가능한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⑤ 하나 파워 온 임팩트

하나 파워 온 임팩트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정부·민간·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집합적 임팩트 방식으로 인턴십을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직무개발 R&D 등을 진행하여 발달장애인 강점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23개의 기업이 참여하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 13개가 생겨났습니다. 직무 개발에서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 및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 유형

1. 일자리 제공형
2. 사회서비스 제공형
3. 혼합형
4. 지역사회공헌형
5. 기타(창의·혁신)형

PART. 04

1.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유형입니다.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30%가 되어야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취약계층으로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범죄구조 피해자 등이 있습니다

국내·외 대표 사례

국내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기업, '베어베터'

- "Bear makes the world better."
- #발달장애인 #좋은일자리 #좋은품질

NHN에서 근무하던 김정호·이진희 대표는 임원직을 그만둔 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부부는 2012년 '베어베터'라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세분화하고, 인쇄부터 커피, 제과, 화훼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덕분에 200명이 넘는 장애 직원들은 각각 적성에 맞는 업무를 맡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베어베터는 곰을 닮은 발달장애인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로, 'Bear makes the world better'를 줄인 말입니다. 경쟁력 있는 설비와 장애인을 이해하는 전문가, 장애 직원으로 이루어진 베어베터는 200여 개가 넘는 기업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외 참전 군인의 인생 2막을 여는 'Veterati'

- "일자리를 구하는 일, 힘든 경험이 아닌 영감을 주는 여행으로"
- #퇴역군인 #일자리연결 #멘토링

'베테라티(Veterati)'는 2015년 공동 설립자인 다니엘 라우(Daniel Rau) 씨가 사업가 다이아나 차이(Diana Tsai) 씨에게 재향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종종 도외시되는 노동 인력인 참전 군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매년 약 20만 명의 군인들이 퇴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퇴역 군인 2명 중 1명은 군대를 떠난 후 실업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역 군인의 절반이 25세 이하이고 20년을 복무하는 군인은 전체 군인의 20%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퇴역 군인들은 반드시 새로운 민간 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취업의 대부분이 인맥을 통해 제공되고 있었고, 군인들은 사회에 보유한 네트워크가 없어 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베테라티는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한 기존 취업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통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필요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시작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퇴역군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베테라티의 특징입니다. 대기업, 정부와 연계하여 그들에게 퇴역군인이라는 인력을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대기업에서 사회공헌 차원으로 퇴역군인을 채용하고자 할 시 공고를 하지 않고 베타라티의 기술 플랫폼을 통해 적합한 인력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베테라티는 국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군인들이 처한 사회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플랫폼에서는 멘티마다 4명 이상의 멘토가 함께하고 있으며, 98%의 멘토가 또 다시 멘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베테라티는 퇴역군인을 영웅으로 존경하는 미국인들의 가치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체 서비스의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 등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위 사회서비스 외에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탄력적으로 인정

국내·외 대표 사례

국내 여행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두리함께'

- "차별 없는 여행을 만듭니다"
- #누구나 #무장애여행 #투어헬퍼(장애인여행안내자)

제약 분야 마이스 사업에 종사하던 이보교 이사는 사고로 목발을 6개월 이용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60만이 넘는 장애인이 있지만 여행에서 마주치는 장애인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이들을 위한 여행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별 없는 여행, 차이 있는 여행'을 캐치프레이즈로 건 '두리함께'의 시작입니다.

장애인의 동선 중 어느 한 곳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여행은 무산되고 맙니다. 무장애 여행은 일반 여행 기획과 달리 직접 현장 답사를 통해 경사 각도와 통로 넓이, 엘리베이터 유무 등을 실측해 코스를 개발합니다. 현재 두리함께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DMZ 평화기행, 여수 등 국내 여행코스와 후쿠오카, 오사카 등 일본 여행 코스를 제공하며, 일반 여행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리함께를 이용한 장애인 고객들은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두리함께의 서비스를 지켜보는 우리 사회는 그들도 당당한 소비주체로서 여행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새로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리함께는 여행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가고자 합니다.

국외 사람을 구하는 구급 의료 서비스 'Tebita Ambulance'

-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 합니다"
- #24시간 #구급차 #의료서비스

'테비타 앰뷸런스(Tebita Ambulance)'는 에티오피아의 한 외과대학 부속병원의 마취 전문 간호사였던 키브렛 어베베 터프아(Kibret Abebe Tuffa) 씨가 설립한 응급 구급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당시 구급차가 부족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던 키브렛 씨는 부상자를 병원에서 기다리기 보다는 구조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해 2008년 집을 팔고 중고 구급차 3대를 마련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부터 재정 자립을 목표했던 키브렛 씨는 스웨덴 국제개발 협력청(SIDA)이 지원하는 비즈니스 전략 훈련 과정을 이수하며 테비타 앰뷸런스 사업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다국적기업과 해외 공관, 외국 NGO단체 및 국외 체류자들에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와 응급 구조 훈련, 구급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인근 지역의 24시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비타 앰뷸런스를 이용했으며, 2만 5천 명이 넘는 이들에게 응급교육 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국가대표 축구팀에게도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비타 앰뷸런스는 현지와 외국 정부, 개발 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ISO 9001 : 2008을 인증을 획득하고, Addis Ababa Health Bureau의 허가를 받는 등 에티오피아 원거리 의료 지원 및 병원 진료를 제공하는 선두 업체로서 응급 의료 분야를 개선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해당 유형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 계층 비율이 각 20%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외 대표 사례

국내 기술로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테스트웍스'

- "기술과 사람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 #취약계층 #SW테스팅 #다양성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음에도 고용 시장에서 외면 받아온 고용 취약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던 윤석원 대표는 2015년 그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테스트웍스'를 설립했습니다.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7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테스트웍스는 다양한 사업 분야 중에서도 AI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테스팅(소프트웨어 검증 과정)이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취약계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위한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플랫폼 「aiWorks」을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열어 데이터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봉사·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ICT 전문 교육과 취업연계 과정을 통해 테스트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테스트웍스는 3명의 직원으로 출발해 2019년 현재, 경력단절여성,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장기실업자, 청년,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60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웍스는 성별, 나이, 장애 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양한 편견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들의 특장점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너지를 내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Koto'

- "하나를 알면, 하나를 가르쳐라"
- #배움 #일 #아이들의미래

'코토(Koto)'는 베트남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지미 팜(Jimmy Pham) 씨는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가 코코넛을 팔거나 구걸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노숙하거나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과 처음 대면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거리의 아이들을 만났고, 식사 한 끼를 사주며 그는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코토 설립을 결심합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가르쳐라(Know One, Teach One)'는 의미의 KOTO 기업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코토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9명의 직원과 함께 샌드위치 가게로 시작한 코토는 주변의 걱정과 달리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아이들과 함께 1년 만에 코토 레스토랑으로 변할 만큼 발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아이를 모아 숙식을 제공하며 식당일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교육을 마친 아이들은 유명 호텔 식당에 취업하는 등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토는 단순히 직업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토를 통해 아이들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를 제 손으로 만들어가고, 함께 생활하는 동안 가족과 같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훈련 센터와 훈련 식당을 두고 직원과 연수생, 자원봉사자, 파트너 팀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토는 더 많은 코토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4.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둘째,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셋째,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지역사회 공헌형 유형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내·외 대표 사례

국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소박한풍경'

-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에 소비자가 한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 #강원도 #사회적경제 #물류허브

2006년에 설립해 10년을 훌쩍 넘긴 '소박한풍경'은 농촌과 지역사회의 홍보물,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며 강원도만의 마을 브랜드를 구축해오던 것을 넘어 이제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박한풍경은 2015년부터 '강원곳간'이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 마케팅 및 온·오프라인 유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강원도 내 7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450여 가지 제품이 입점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은 2013년 2개소에서 시작해 춘천 5개소를 비롯해 원주, 강릉, 평창, 속초 등 강원도 전역에 17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입점 기업의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2014년 2억 원에서 2018년 11억 원까지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박한풍경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강원도의 가치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 2019년 강원도 사회적경제 선도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유통망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소박한풍경은 따뜻한 경제를 지향하는 기업들과 함께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외 지역 경제를 이끄는 공동체 'Hackeny co-operative developments'

- "지역의 수익을 다시 지역으로"
- #공간지원 #예술프로젝트 #지역재생

대표적인 슬럼가로 손꼽히던 런던의 해크니(Hackney) 지역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산업군이 40% 이상 성장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죠. 바로 지역 공동체 경제개발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Hackeny co-operative developments)' 덕분입니다.

주거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해크니 협동조합은 구청에서 버려진 건물을 활용해달라는 요청에 100년간 임대를 받아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사업기획서를 작성해 '트리오도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융자금을 얻은 해크니 협동조합은 1층에는 상가, 2~3층은 사무공간을 꾸려 지역의 소상공인과 사회혁신가,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빌려주기 시작했고, 전체 80여 사업자가 입주해 있는 '달스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예술가들과 사회 혁신가들은 질 높은 예술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개최했고, 소상공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해크니는 인기 있는 동네로 변하기 시작했습

니다. 공공 공간을 개발하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마약 거래와 강도 발생률도 줄어들었습니다.

해크니 협동조합의 도미닉 엘리슨(Dominic Ellison)대표는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를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에 풀린 돈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함께 할 미래를 꿈꾸고 있는 해크니 협동조합은 앞으로도 해크니를 더욱더 멋지고 살기 좋은 행복한 곳으로 바꿔 갈 것입니다.

5. 기타(창의·혁신)형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타(창의·혁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보다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폭넓게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대표 사례

국내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유한책임회사 더함'**

- "집은 사는(buying) 곳이 아닌 사는(living) 곳입니다"
- #협동조합형주택 #공간의공공성 #지역혁신

나날이 높아져 가는 주거 비용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변호사로서 법률 활동을 해온 양동수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집은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것에 착안해 주거 문제 개선에 뛰어들었습니다. 2014년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더함'은 공간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더함의 사회적부동산 사업센터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임대 아파트와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가꾸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스테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입주민이 직접 아파트와 시설 커뮤니티를 기획해 운영하는 혁신적인 주거 모델입니다. 현재 위스테이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남양주시와 고양시 두 곳에 협동조합 임대주택을 짓는 첫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산해갈 예정입니다. 더함은 더불어 사는 공간, 함께하는 공동체 모델을 정립하는 것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도시재생과 혁신공간 창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국외 **옥상 농장으로 도시 내 녹지를 조성하는** 'BROOKLYN GRANGE'

- "건강하게 농사를 짓는 일은 우리의 열정입니다"
- #옥상농장 #수익환원 #지속가능성

일반적으로 건물 옥상은 미사용 공간으로 방치되는 편입니다. 활용한다고 해도 단순 휴게 공간에 불과했던 옥상 공간이 '옥상텃밭'으로 새로운 쓰임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브루클린 그랜지(Brooklyn Grange)는 딱딱하고 잿빛만 가득한 도심 속 건물 옥상에 녹푸른 '루프탑팜(Rooftop Far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그랜지의 세계 최대 옥상 농장에서는 매년 50,000파운드 이상의 유기농 농산물이 재배됩니다. 햇빛이 잘 드는 옥상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Farm to Table' 캠페인 운동하에 지역의 레스토랑에 공급되며, 주말에 열리는 프리마켓 등에서 판매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은 믿을 수 있는 원산지의 안전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푸드 마일(Food Miles travel,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이동 거리로 지구온난화 영향 등 평가)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브루클린 그랜지는 농산물을 재배해 판매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추가 수익활동을 통해 교육 및 사회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영리 교육파트너인 시티 그로어스(City Growers)와 함께 청소년을 초청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장 공간을 활용해 성인 대상 워크숍 프로그램과 요가 수업, 결혼 예식 및 지역 쉐프들과의 디너 행사 등 이벤트 사업을 운영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고 있는 브루클린 그레인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삶을 목표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 우수사례

(주)루트에너지

(주)베이비플래너

(주)스펠크리에이티브

(주)암흑

(주)상상

(주)코끼리공장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온리

(주)알로하그린

PART. 05

재생에너지로 두 마리 토끼 잡는

㈜루트에너지

환경문제 해결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운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투자, 이익은 지역주민에게

루트에너지는 화석연료나 원자력발전과 같은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중 98%는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 원자력발전 등과 같이 환경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에너지다. 일상에서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루트에너지는 환경과 안전을 오염시켰던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서비스로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재생에너지란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로, 기존 화석연료 등과 달리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에너지다.

루트에너지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였던 지역수용성을 극복한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루트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설립되는 지역에 '커뮤니티 펀딩'을 통해 설립 초기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ROOT ENERGY

'커뮤니티 펀딩'은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루트에너지에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하면, 루트에너지가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발전소를 짓기 위해 필요한 자금 투자 프로젝트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까지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연 7~15%의 수익을 제공한다. 루트에너지 홈페이지에서 발전소 시공 및 운영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윤 대표는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우대금리를 주고, 멀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 된다"며 "프로젝트에 따라 지역주민만 참여할 수 있거나, 낮은 금리로 타지역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를 비롯해 경기도 포천·연천, 충남 서천, 강원 삼척·태백·영월, 경남 창녕·거창·합천, 경북 문경 등 전국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립했고, 앞으로 부산, 충북 진천, 전북 군산, 전남 영광·신안·나주, 강원 영월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 전국에 지사를 늘리고, 지역에서 사업을 발굴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계획 중이에요."

'덴마크 재생에너지 성공사례를 국내에 도입해보자!'

살아있는 개구리를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놀라서 뛰어나와 살 수 있다. 하지만 차가운 물에 넣고 천천히 물을 데우면 그 물의 온도에 적응한 개구리는 결국 죽는다.

윤태환 대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읽었던 '실험실 지구' 중 한 부분이다. 인간은 기후 변화에 둔감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끓는 물 속 개구리' 이야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도 제대로 못잤어요. 그때부터 환경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공부를 하다보니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했죠."

(주)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

윤 대표는 본격적으로 에너지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시작해 정책·기술·금융 등 전문적인 지식을 배웠고, 이후 덴마크로 향했다. 덴마크는 독일과 더불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다. 윤 대표는 "덴마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에너지 문제해결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라면서 "덴마크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에너지 문제해결에 참여하다 보니 정치인들도 이념과 상관없이 에너지 문제를 공통의 과제로 받아들였고, 재생에너지와 친화된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덴마크의 성공 방정식을 국내 상황에 맞게 연구해 도입했다.

윤 대표는 "덴마크와 독일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성공하기 위해 20~30년이 걸렸다"며 "루트에너지는 10년 안에 국내에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사례를 만들기까지 기간 '1년 반'

지금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루트에너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사업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믿고 투자 하느냐'는 반응이었고, 발전소를 설립할 장소도 찾기 어려웠다. 그럴수록 시장에 신뢰감을 주면서, 시민들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윤 대표는 "사람들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공공기관에 사업을 제안했지만, 서울에너지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거절당했다"며 "서울에너지공사 옥상의 유휴 부지를 빌려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설득해서 결국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나니 이후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일이 추진됐다. 윤 대표는 "첫 사례가 나오기까지 양천구 주민, 사회적경제조직, 에너지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도움이 컸다"며 "지금은 한달에 수십 건의 사업 의뢰가 들어올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트에너지의 현재 투자자 수는 2천 명 정도. 향후에는 10만 명의 에너지 시민을 양성해 100만 명, 1천만 명이 에너지 시민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사회학적으로 10만 명 정도가 하나의 의제를 갖고 행동을 변화시키면 사회적 규범이 된다고 해요. 직장인들이 배낭을 메고, 텀블러 사용이 일상화 된 것 처럼요. 루트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자가 10만 명이 되고, 규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겁니다."

설립연도
2013년

대표자명
윤태환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홈페이지
www.rootenergy.co.kr

한 눈에 이해하는
(주)루트에너지

대표번호
02-792-8934

대표메일
ask@rootenergy.co.kr

소셜 미션
전 세계 100%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주요 사업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구성원 수
15명

기업유형
예비사회적기업

기존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솔루션
100%

커뮤니티펀딩 투자자 수
2000명

커뮤니티펀딩 투자 최대 금액
1억 원

커뮤니티펀딩 투자금
77억 원

전국 프로젝트 시행 지역
10개

진행한 프로젝트 수
28개

(2019년 6월 기준)

출산 전부터 육아까지

㈜베이비플래너

일자리 창출

결혼이주여성 등 경력단절 여성이 산후도우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취약계층 무료 산모서비스

취약계층 가정 산모지원을 위한 무료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코치' 역할 하는 베이비플래너

예식장 고르기부터 신혼여행 정보제공까지, 바쁜 커플을 대신해 결혼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사안들을 한 번에 결정해주는 웨딩 플래너. 이미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직업 중 하나다. 그렇다면 출산 전 산부인과 선택부터 출산용품 마련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직업은 뭘까? '베이비플래너'다.

산후도우미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베이비플래너는 아직 와 닿지 않는다. 예비사회적기업 '㈜베이비플래너'는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을 널리 퍼트리기 위해 등장했다. 김명섭 대표는 8년간 산모도우미 업체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느꼈던 다양한 애로사항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의 필요성을 느꼈다.

㈜베이비플래너는 정부가 지정한 울산 산후도우미 정부 바우처 제공기관이자 산후도우미 지정 교육 기관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직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 '베이비플래너'를 교육·양성하고, 이들을 파견해 상담·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는 임신과 분만으로 체력이 떨어진 산모가 출산 이전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게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 산후도우미로 잘 알려져 있다. 후자는 개인 임신·출산·육아 전문상담사로, 가정을 방문해 출산 전부터 후까지 멘토 역할을 한다.

"베이비플래너는 2006년부터 미국에서 전문 직업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가 2013년에 '베이비플래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낸 바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죠. 당시 존재했던 베이비플래너 전문 교육 기관은 형식적인 수준이었어요."

결혼 이주 여성 일자리 창출…소외된 여성 위해 일한다

김 대표와 동료들은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뛰어들면서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목적으로 삼고 활동하던 도중 결혼이주 여성들이 눈에 밟혔다.

다문화가구 30만 시대에 이르렀지만,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이하 다문화가정 비율은 89%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이내 출산하는 산모 비율은 84%. 여성가족부가 올해 내놓은 '2018년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민과 귀화자들이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정착한 비율이 60%인데, 이들이 겪는 경제·육아 문제는 여전하다는 의미다. 낯선 나라에서 임신과 출산을 거쳐 사회적 고립까지 감당해야 한다.

㈜베이비플래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임신·출산·육아를 돕고, 관련 직업교육도 진행해 이들이 직접 전문가로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인을 제외하고 결혼이주여성 중 ㈜베이비플래너가 관리하는 베이비플래너는 4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2명이다.

방수포는 그만~ 베이비플래너만의 '출산축하 선물박스'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미혼모센터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가서 정보제공 교육도 진행한다. 전문 강사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능을 기부한다. 최근에는 교육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승인 업체로도 선정돼 학생들과 예비부모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베이비플래너 강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대하며 이들이 손재주가 좋다는 사실을 알게 알게 되면서 함께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모가 있는 가정에 주는 선물에는 배냇저고리, 방수포 등이 포함되는데, 이건 분유 회사도 주는 제품들이라 한 가정에서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선물이 중복되는 거죠. 저희는 그 외에 진짜 필요한데 선뜻 구매하지 않는 제품이 어떤 걸까 고민했죠. 그래서 결정한 게 낮잠 이불 세트, 4중 거즈 블랭킷, 기저귀 파우치, 스카프 등이었어요."

㈜베이비플래너
김명섭 대표

다문화 여성들이 만든 출산 축하 선물은 KC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남구 육아지원센터에 납품 중이다. 남구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된다. 취약계층 가정에 기부도 한다.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닌, 다문화 여성들의 정성이 한땀 한땀 깃든 제품들이다. 김 대표는 "재봉틀을 이용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보며 안정적인 수익과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작년에 약 1000명에게 무료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울산에서만 했거든요. 더 커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금 양산, 부산, 제천에 지사가 있는데 전국 단위로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한 눈에 이해하는

㈜베이비플래너

설립연도
2017년

대표자명
김명섭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168번길 11

홈페이지
www.베이비플래너.com

대표번호
1566-8525

대표메일
052baby@naver.com

소셜 미션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향상

주요 사업
베이비플래너 양성 및 파견, 산후조리 서비스, 출산 축하 선물 박스 등

구성원 수
15명

기업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무료 제공한 취약계층

1000명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6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14명

국내 지사 개수

3곳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해 선물한 출산축하선물박스

200개

창업 후 2019년 상반기까지 매출 실적

3억 5600만 원

영상에 담는 지역과 삶

스펠크리에이티브

지역 미디어 환경 변화

지역민에 다양한 미디어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화서비스 제공

지역 내 청년들을 위한 미디어 분야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역과 함께 만든 웹다큐 '김해와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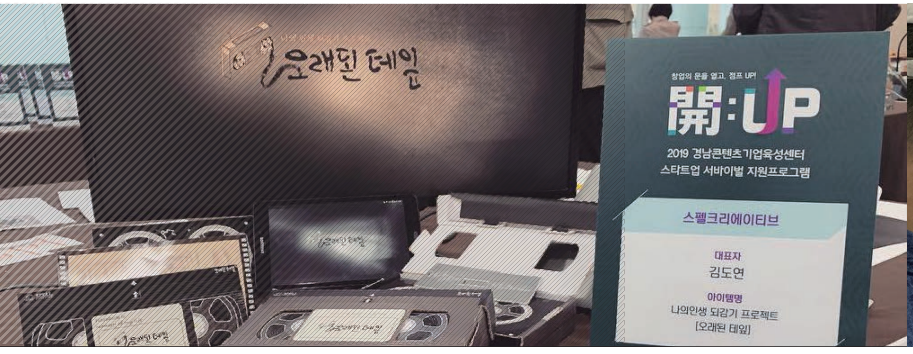
"제가 김해 토박이에요." 김도연 스펠크리에이티브(이하 스펠) 대표는 대학에서 영상과 음악을 전공했다.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미디어 환경이 척박한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했다. '왜 지역에서는 미디어 관련 일을 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김 대표는 지역에서 미디어 일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미 지역을 떠난 친구들과는 다른 선택이었다.

"저희가 원래 밴드부를 같이 했어요." 김도연 대표와 스펠 직원들은 대학 졸업 후 밴드부 활동을 함께 했다. '스펠'이라는 이름 역시 밴드부 이름에서 가져왔다. 대학에서 음악과 영상을 함께 전공한 이력 덕분에 밴드활동과 영상콘텐츠, 문화기획 등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었다.

밴드 스펠, 미디어콘텐츠 회사로 거듭나다

김 대표는 "당시 구색을 갖춘 상태도 아니었는데, 촬영에 기꺼이 응해준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김해와 사람들'은 가볍게 시작한 콘텐츠였는데, 반겨주는 지역민들을 보면서 더 전문적으로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스펠은 2018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8기에 참여, 같은 해 8월 미디어콘텐츠회사 스펠크리에이티브를 설립했다. 12월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됐다. 현재 김도연 대표를 포함해 총 4명이 함께하고 있다.



지역에서 미디어 일을 하기로 한 스펠은 "김해에서 하기로 했으니, 김해 사람들을 담자"는 생각으로 무작정 영상제작에 나섰다. 사무실과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모임은 집에서, 장비는 일을 하며 하나씩 마련해 갔다.

꽃집, 카센터, 경찰서, 빵집, 어린이집 등 일상 속 사람들을 영상에 담았고, 이들이 촬영한 영상은 7회를 한 시즌으로 하는 '김해와 사람들'이라는 작품으로 탄생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나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미디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지역 어르신들이 미디어를 이용해 사업 홍보 등을 하려해도 내용을 직접 알아보기 쉽지 않고요. 우리가 활동하면서 이분들에게 미디어 관련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스펠은 영상제작, 광고홍보, 행사기획 등을 하고 있다. 지역 청년들에게 영상촬영 기법 등을 알려주는 '영상레시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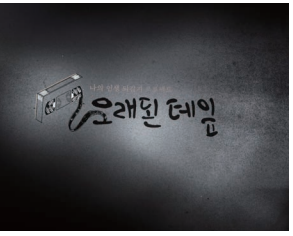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상영회', 경남 의령 '괘재라 가등청정' 홍보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에서 영상이나 예술을 하는 청년들에게 공연이나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지역 활동가고요."

'오래된 테잎', 우리네 부모님 영상 자서전

스펠은 올 하반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부모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자서전 '오래된 테잎'을 제작할 예정이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 당신들 이야기를 아주 잘 하세요. 그런데 기록으로, 영상으로 남기자고 하면 자신 없어 해요. '내 이야기를 남겨서 뭐해….'하는 반응이 돌아와요."

이 같은 반응은 부모의 존재감, 자존 등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오래된 테잎'을 기획하는 바탕이 됐다. 김 대표는 "우리 부모님들 삶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말했다.

"미디어 환경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영상을 촬영하고 만들지만 아직 영상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 세대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사진이 전부였잖아요. 영상매체로 남겨놓은 이야기가 없어요. '오래된 테잎'은 부모님 삶을 영상으로 남기려는 시도에요."



'오래된 테잎'은 스펠이 직접 촬영하는 영상과 해당 시니어가 가지고 있는 사진 등 자료를 활용해 제작할 예정이다. 스펠은 크라우드펀딩에 앞서 사전 제작을 진행해 보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시니어 반응, 제작 가능성 등을 확신할 수 있었다.

김 대표는 '오래된 테잎'을 "부모님 보다는 자식의 소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래된 테잎' 기획 역시 영상을 공부하며 '부모님을 영상으로 담겠다'는 김 대표 생각이 녹아있다.

"오래된 테잎은 자식의 소망이 더 강한 듯해요. 더 늦기 전에 부모님 일대기를 담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영상을 활용한 기록이 새로운 상조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후에 세월이 지나서 내 자녀, 지인들에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 엄마는 이랬다'고 전해줄 수 있는 기록을 영상으로 남겨 드리고 싶어요."

스펠크리에이티브
김도연 대표

설립연도
2018년

대표자명
김도연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232

홈페이지
www.facebook.com/spellcreative

한 눈에 이해하는
㈜스펠 크리에이티브

대표번호
055-328-2550

문의처
010-3805-9600

소셜 미션
지역 내 미디어환경 조성

주요 사업
영상·음원,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구성원 수
9명

기업유형
예비사회적기업

콘텐츠 관련 박람회 스펠 프로젝트 대중 선호도
100%

영상제작 파드너 고객분들 만족도
98%

작년 대비 매출 상승(2018.08 법인 설립)
2.5배

경남사회적기업 미디어콘텐츠제작 청년법창업 부분
1개

스펠 프로젝트와 함께해주신 시민
8000명

장애인 인식 개선

㈜암흑

장애인 인식 개선

암흑 속 이색 체험카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나섭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각장애인부터 지체장애인까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암흑
성정규 대표

2시간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안내하는 직원의 어깨를 잡았다. 드디어 암흑으로 들어간다. 어둠 속 미로를 지나 자리에 앉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세한 빛이라도 있지 않을까 눈을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울렁거리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직원의 안내대로 눈을 감으니 한결 나아졌다.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치를 확인했다. 시간을 알려주는 작은 버튼과 점자가 인쇄된 책이 놓여있다. 식사가 준비됐다. 직원의 설명에 따라 손의 감각으로 그릇과 쟁반의 위치를 확인했다. 음식이 든 접시를 들고 먹으면 된다. 먼저 다녀간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 다들 접시에 손을 담그거나 음식을 얼굴에 묻히고 먹었다는데, 최대한 흘리지 않고 먹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수저에 음식이 제대로 퍼졌는지, 주문한 여러 가지 음식 중 내가 들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음식을 입까지 가져가는 것도 힘들었다. 중간에는 숟가락을 떨어뜨려 당황했다.

암흑 속에서 탁구경기를 하는 것도 어려웠다. 공이 허공을 날아다니는 일반적인 경기방식과 달리 시각장애인용 탁구는 공이 탁구대 위를 굴러다닌다.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공이 굴러가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경기 중 공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아무리 바닥을 훑어도 찾을 수 없었다. 보드게임도 마찬가지.

amheuk

어느 정도 어둠에 적응이 됐는지 게임을 하는 것까지는 재미있었지만, 바닥에 떨어진 게임도구를 찾을 수 없어 힘들었다.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 나머지 감각인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예민해졌다.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음식물을 씹거나 공이 굴러갈 때 발생하는 소리, 음식의 냄새, 맛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졌고, 점자책을 만질 때 손끝의 감각도 예민했다. 식사를 같이하던 친구와 손을 부딪쳤을 땐 소리를 지를 정도였다.

"어느 날 갑자기 시각 장애인이 되어 있었어요"

눈탱이감탱이를 운영하는 성정규 ㈜암흑 대표는 앞이 완전히 안 보이는 전맹은 아니지만, 형태와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저시력 장애인이다. 그가 시각장애인이 된 건 초등학교 3학년. 잠을 자고 일어나니 시각장애인이 돼 있었다. 시신경에 염증이 생겨서다.

이후 제과 공장, 출판사 등에서 상자를 나르는 등의 일을 했고, 안마 회사를 차려 운영했다. 성 대표는 "장애는 후천적으로 오는 경우가 88% 이상이다.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될 수 있다"며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많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성 대표는 TV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해외의 블라인드 레스토랑에 대한 방송을 보게 된다. 이를 계기로 비장애인들이 직접 암흑 속에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목표로 2013년 암흑카페 눈탱이감탱이의 문을 열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기관으로 인증 받아

암흑은 단순하게 즐기는 카페를 운영하는 곳이 아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이를 인정받아 성정규 대표는 지난해 4월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성 대표는 지난해 5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같은 해 7월 암흑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특히 암흑은 국내 최초로 집체교육, 체험교육, 원격교육 등 3종류의 교육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색 체험을 원하는 친구, 연인들은 물론 교육을 받으려는 기업과 학교에서 주로 찾는다.

직원을 뽑을 때는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각장애인 3명, 뇌병변 장애인 1명, 지체장애인 2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지금은 전 직원 5명 중 3명이 취약계층이다.

눈탱이감탱이는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 '4D 시뮬레이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대형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4D 시뮬레이터는 본래 특수제작 된 움직이는 의자에 앉아 영상을 보면서 체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눈탱이감탱이에서 준비 중인 4D 시뮬레이터는 암흑 속에서 진행된다.

성정규 대표는 "4D 시뮬레이터를 통해 암흑 속에서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차의 움직임, 비행에서 난기류를 만났을 때 상황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면서 "4D 시뮬레이터는 재미와 신선함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게 신나는 체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D 시뮬레이터는 현재 구축 중이며, 오는 8월부터 이용가능하다.

눈탱이감탱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성대표는 "장애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눈탱이감탱이를 통해 비장애인들이 건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성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이 어디가 얼마나 불편한지 직접 느끼고,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상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거든요. 작은 노력이지만, 눈탱이감탱이에서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립연도
2015년

대표자명
성정규

주소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길 26
준빌딩 8층

홈페이지
http://www.noongam.co.kr/

한 눈에 이해하는
㈜암흑

대표번호
02-3144-3760

대표메일
nongam7@naver.com

소셜 미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편견·인식 개선

주요 사업
장애인식개선 카페
'눈탱이 감탱이'

구성원 수
5명

기업유형
인증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수
3명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2018년)
7월

국내 첫 3종 교육(집체교육, 체험교육,
원격교육) 수행
3종

24시간 수강 가능한 원격교육서비스
24시간

젊은층을 공략한 4D시뮬레이터
2030회

문화예술로 사회적 편견 줄이는

㈜상상

사회참여 확대

문화교육을 통해 노인·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문화서비스 제공

문화 취약지역에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상으로 바꾸는 일상’ 문화콘텐츠 기획하는 노인·이주여성들

“제가 일하며 만난 사람들은 전부 사회적 약자였어요. 아이, 노인, 이주여성을 향한 차가운 시선을 바꾸고 싶었죠.”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한국어, 연극 강사로 10년 넘게 일해 온 주석희 대표는 ‘주식회사 상상’을 설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80대 노인도, 다문화 여성도 모두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인데,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다짐을 하게 됐죠.” 오랜 시간 연극 기획자, 한글 교사로 살아온 노하우를 담아 2018년 4월 회사를 설립했다.

그해 12월 경상북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 1년간 ‘상상’을 통해 칠곡에 사는 80대 할머니들은 영화배우로 데뷔했고, 20~30대 이주여성들은 연극 주인공을 맡아 무대에 섰다.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드러낸 적 없던 여성들은 상상을 통해 일상이 바뀌고 삶이 변화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됐다.

상상의 주요 활동은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노인 세대만의 감성을 담은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이다. 지난 2월 개봉해 주목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에서 할머니들이 글을 공부하고 시를 쓰는 과정이 조명됐다.

칠곡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인문학 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문맹세대인 노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글을 쓰게끔 지원했다. 한국어 교사인 주 대표 역시 마을의 작은 공부방에서 한글을 가르쳤는데, 소식을 듣고 칠곡에 내려온 김재환 감독이 복성리 할매 7인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낙점한 것이다.

인생 팔십 줄,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살던 할매들의 삶은 글을 쓰면서 활기를 띤다. 이들의 소박하지만 정겨운 일상은 카메라에 담겨 전국 극장에서 개봉했고, 김정숙 영부인의 응원에 힘입어 4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주 대표는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과연 재밌을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스크린을 통해 보니 할머니들의 삶이 너무 재밌고 유쾌했다”고 이야기했다.

감성 할매 콘텐츠 개발… “편견 줄이고파”

상상은 영화를 계기로 할머니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감성 할매 콘텐츠’를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글과 그림 등을 바탕으로 이모티콘이나 굿즈 상품 등을 제작해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에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한 편의 연극처럼 구성해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가이드가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맡는 여행 상품도 구상 중이다.

지난해에는 주 대표가 10여 년간 노인들을 교육하며 모은 글, 그림 등 각종 자료를 모아 '할매의 다락방'을 출간하기도 했다. 성인 문해용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동시에 교육 방법을 담아 책을 통해 누구나 자서전이나 시집을 쓸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는 "책을 엮으면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의 의미를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목표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흔히 노인세대라고 생각하면 젊은이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노인'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단어들도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어르신들은 순수하고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모습이 더 많았거든요. 앞으로 한국이 더 고령화 사회가 될 텐데, 노인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는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이주 여성 3인 직원 채용 전문 연극인 육성해 사회 참여

상상의 또 다른 활동은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주여성을 직접 연극 기획 및 제작에 참여시키고, 배우로서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상상은 이주여성 3명을 직원으로 채용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주 여성을 주목한 이유에 대해 주 대표는 "칠곡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 이주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게 됐는데, 이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이 매우 심각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이들은 언어가 서툴러 소통이 어려운 데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차별받고 소외되며 무시당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역시 집안일이나 육아, 농사일 혹은 공장이나 식당에서의 노동 등으로 한정됐다. '이주 여성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없을까'를 고민하던 주 대표는 연극을 떠올렸다. 극단 활동을 해온 경험을 살려 성교육, 장애인식 개선, 생활 보건·건강, 다문화 윤리 교육 등 교육용 연극 콘텐츠를 만들어 주로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연한다. 현재 상상의 주요 수익 모델 역시 경북 지역의 학교나 교육청,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손잡고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실제 상상과 인연을 맺고 전문 연극인의 길을 걷게 된 이주 여성들의 삶은 크게 변화했다. 주 대표는 "이들에게 늘 당당하고 멋지게 살라고 말해주는데, 표정, 말투, 걸음걸이까지 바뀌는 것을 보고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며 "직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은 상상에서의 활동에 만족해 '빨리 출근하고 싶다,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직장이다'라고 말할 정도"라면서 웃었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정신 차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웃음) 사실 큰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누가 크게 알아주는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냐면서요. 그런데 저는 늘 '왜 이렇게 꿈꾸면 안 돼?'라고 반문해요. 상상을 통해 우리 사회 차가운 시선과 편견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고, 소외당한 누군가가 한 번쯤 자기 인생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런 벽이 허물어지면 우리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상상
주석희 대표

설립연도
2018년

대표자명
주석희

주소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 도로길 28

인스타그램
sangsang0626

한 눈에 이해하는

㈜상상

대표번호
010-3914-5917

대표메일
wntjrgml@hanmail.net

소셜 미션
취약계층 사회참여 및 문화 취약 지역에 문화예술 기회 제공

주요 사업
아동 교육용 연극 제작 및 운영, 감성 할매 콘텐츠·굿즈 개발

구성원 수
5명

기업유형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수

6명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 참여 시니어

7명

영화 '칠곡 가시나들' 관객 수

4만명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3만명

취약계층 교육 제공 횟수

200회

고장난 장난감 재순환 모델

㈜코끼리공장

환경오염 최소화

고장난 장난감 재사용 가능토록해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장난감 기부 문화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 발달지원을 위해 기부 받은 장난감을 수리해 재기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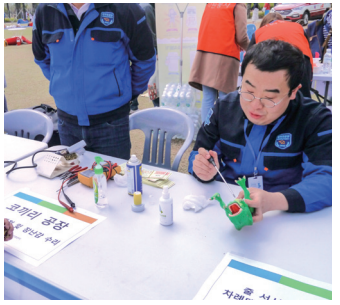
“고장 난 장난감 고쳐 쓰자” 봉사활동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낸 가정양육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매년 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은 12만kg, 순환·재사용되는 장난감은 40% 미만이다. 복합물질로 구성된 플라스틱 장난감은 재활용이 불가해 폐기물로 처리된다.

“순수하게 플라스틱으로만 만들어진 장난감 중 일부는 녹여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나사나 전선 등 다른 부품이 붙어있는 장난감들은 그대로 매립쓰레기가 됩니다.”

코끼리공장 이채진 대표는 장난감 대여관을 운영하던 시절, 쉽게 망가져서 버려지는 장난감을 아깝게 여겼다. A/S 서비스를 위해 장난감 제작·유통업체를 찾아봤지만, 600개가 넘는 업체 중 수리를 해주는 곳은 5% 남짓이었다. 고쳐주지 않고 새 장난감을 보내는 곳도 있었다.

이 대표는 직접 장난감 수리 봉사를 시작했다. 기계 분야 종사자들을 모아 봉사 단체를 만들고,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며 고장 난 장난감을 수선했다. 고마움의 표시로 장난감을 기부하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이 대표는 받은 장난감을 고친 뒤 재정이 어려운 다른 어린이집에 전달했다.



봉사활동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했다. 코끼리공장은 현재 연간 1만 개 이상의 장난감을 나이와 발달 수준에 맞춰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나눠준다.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는 동시에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봉사활동을 사업화한 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접한 후였다. 이 대표는 “길 가다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팀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봤다”며 “사회적기업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에 뛰어들어 첫 시도에서는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육성사업 참가팀 추가 모집 시기에 붙었다.

사업 참가팀으로 선정됐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다. 장난감 수리 시장이 작고,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사업은 어려워보였다.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다 어린이집에는 방역 예산이 고정적으로 책정돼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통 방역 업체들은 어린이집에 약품만 뿌리고 가는데, 저희는 여기에 장난감 수리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필요 없는 장난감을 기부 받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장난감 수리에서 아동 기관 방역·소독까지

아동기관 관리 서비스를 사업 모델로 잡고 나서,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마침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방역 교육을 6개월 수강했다. 이 대표는 “교육 받는데 지원금을 거의 다 쓴 것 같다”며 웃었다. 동시에 그는 방제 전문서비스 기업 세스코에서 사람을 모으고,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는 방역·소독, 장난감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가정통신문까지 직접 만들어줬다. 코끼리공장은 점점 입소문을 탔다. 장난감을 기부해주는 어린이

집도 생기면서, 회사는 이 대표가 만들고자 했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가' 육성사업이잖아요? 저는 정말 육성사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가입니다."

장난감 순환 플랫폼 계획… 소비문화 개선·환경 보호 목표

코끼리공장은 원래 사회서비스형으로 출발했다. 이 대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배우면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느껴 혼합형으로 유형을 바꿨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치도 함께 추구하고 싶었다고 한다. 현재 코끼리공장 식구는 총 28명으로, 장난감 수리 인력, 아동 물품 소독 인력,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연계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해요. 착하고 성실하지만 교육 수준이 낮아 취업이 힘든 청년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우리 회사에서 꿈과 미래를 갖게 하고 싶었어요.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도 함께 일하는 중입니다."

코끼리공장은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최우수상에 빛나며, 2016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재 3년째 국내 아동뿐 아니라 해외 난민에게도 장난감을 기부한다. '아빠 장난감 수리단,' '뚝딱뚝딱 장난감 수리 교육' 등 지역 공동체 환경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작년에는 장난감 소독수 '메가크린'을 자체 제작했다. 식약처와 한국식품연구과학원의 검증을 마친 식품첨가물 형태의 살균소독수로, 가정 및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집 200여 곳에 납품 중이다.

㈜코끼리공장
이채진 대표

올해는 찾아가는 장난감 수리 서비스와 온라인 중고 장난감 기부·매입·판매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당 1000원에 장난감을 고쳐 장난감 폐기량을 줄이고 육아비용 절감을 돕는다. 또한, 장난감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쌓인 포인트를 활용해 다른 장난감을 구매할 수 있다. 코끼리공장은 타 중고매장 사이트와 차별화하기 위해 아동 발달 과정에 따라 장난감을 분류할 예정이다.

"가정에 안 쓰는 장난감 많이 보내주세요! 기부 문화가 퍼져서 어린 시절의 차별을 없애는 데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설립연도
2014년

대표자명
이채진

주소
울주군 범서읍 점촌2길 50

홈페이지
www.kogongjang.com

한 눈에 이해하는
㈜코끼리공장

대표번호
052-242-1661

대표메일
kogongjang@gmail.com

소셜 미션
장남감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등에 장난감 기부

주요 사업
장난감 수리, 국내외 장난감 기부,
아동기관 관리

구성원 수
28명

기업유형
인증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수
28명

국내외 아동 난민에
장난감 기부
3년

자체 개발 장난감 소독수
'메가크린' 납품처
200곳

방역교육 수강 기간
6개월

2019년 중고 장난감 기부 · 매입 · 판매 온라인 플랫폼 운영 개시
200회

괘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주거복지 실현

국민의 괘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자활기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돕습니다.

전국 단위 사업 선정→ 각 지역 자활기업에 업무 분배

주거기본법 제17조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이 정해져 있다. 주택은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을 필수로 갖춰야 하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 주거면적도 명시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차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 지난해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12%에 달한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한주협)은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활동하는 전국 180여 개 자활기업이 뜻을 모아 설립했다. 지난 2008년 주식회사 한국에너지복지센터로 시작해 2015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인정 전국자활기업이자, 국토교통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등으로 ‘주거·복지·고용’에 관련한 사업 운영, 정책 제안을 주도한다.

대부분의 중앙 조직이나 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전략적으로 지방이 더 좋겠다는 조언에 따라 전주시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전주 사무실에서 만난 김정태 한주협 이사장은 “한주협처럼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은 없다”면서 “전국 단위의 주거복지 사업에 선정되면, 해당하는 각 지역 자활기업에 일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한주협의 주요 사업은 △취약계층 주택 신축·개보수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진단·시공 △사회주택 공급·운영 △기업의 주거복지 사회공헌활동(CSR) 등이다. 연 매출은 2018년 기준 약 33억 원으로, 이 중 180여 개 자활기업의 조합비로만 1억 6000만 원 정도가 모인다.

주요 사업 모델은 기업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주거복지 관련 사업 수행이다. 사회공헌활동을 원하는 기업·기관에서 한주협에 사업을 의뢰하면, 해당 지역 자활기업에 위탁해 취약계층의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등의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의 ‘희망의 집수리’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2016~2018년 3년간 15억 3000만 원 예산을 통해 총 269개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 시설이 혜택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는 물 사용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2014~2018년 5년간 46억 1000만 원 사업비로 총 454개 가구에 화장실 개·보

수, 옥외수전 설치 등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취약계층을 돕는 '다솜둥지복지재단', 참전용사의 노후를 지원하는 '육군본부'의 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집을 수리했으며,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과는 LED 전구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활동을 수행했다. 김 이사장은 "업(業) 특성에 맞는 CSR을 원하는 각 기업·기관의 특색에 따라 아이템 및 수혜자를 발굴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 선도 전주, 도시재생·사회주택·지역돌봄 사업 참여

한주협은 전주의 도시재생·사회주택·지역돌봄 등 다양한 지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주시는 2011년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꼽힌다.

한주협은 지난해 노후 주택이 많은 전주 승암마을의 집을 수리하고, 팔복동과 중화산동에 각각 사회주택을 공급해 재개발 지역민과 여성 등 37명을 입주시켰다. 올 하반기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문턱 제거, 화장실 미끄럼 방지, 안전바 설치 등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김 이사장은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구가 훨씬 많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탓이다. 그는 "주거환경 전체를 개선해주는 큰 사업도 좋지만, 독거노인·장애인 가구는 전등이 나가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도 당장 고치지 못해 일상에 불편을 겪는다"며 보다 세심한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경험·노하우 쌓이며 실력 향상… 개도국에 건축기술 전수도

설립 후 10년을 넘어선 한주협은 신축, 개·보수 등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예전에는 저희가 집수리를 한다고 하면 못 미더워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실력이 쌓이면서 믿고 맡기신다"면서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보기에도 좋도록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신경을 쓰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내를 넘어 개발도상국에 건축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조합원 총 75명을 파견했다. 84개 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했으며, 현지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을 교육하기도 했다. 파견을 나간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커서 이들을 주축으로 조합 내 봉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할 계획도 있다.

"사회주택 운영이나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저희가 사회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특히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비해 아직 인식이 낮은 편이거든요. 자활기업 구성원이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이다 보니, 실력이나 기술이 부족할 거라는 오해도 많이 받아요. 한주협이 앞으로 가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자활기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인식도 바꿔보고 싶어요."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김정태 대표

설립연도
2008년

대표자명
김정태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35-3

홈페이지
www.coopewc.or.kr

한 눈에 이해하는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번호
063-255-0479

대표메일
ewc0479@hanmail.net

소셜 미션
취약계층 주거복지, 저소득층 자립 지원 실현

주요 사업
주택 신축 및 개·보수, 에너지 효율 진단·시공, 사회주택 운영

구성원 수
9명

기업유형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 연계하는 자활기업 수

180개

'희망의 집수리'로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 시설 혜택(2016~2018년)

269개

물 사용 환경 열악한 취약계층 지원 (2014~2018년)

454개 가구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의 주거환경 개선지원에 파견한 조합원 수(2016-2019년)

75명

주거환경 건축 기술 교육 제공한 카자흐스탄 현지 학생 수(2016-2019년)

70명

폐종이에 움튼 수제카드

협동조합 온리

지구 환경 보호

폐종이를 재활용해 생명을 품은 새싹으로 재탄생 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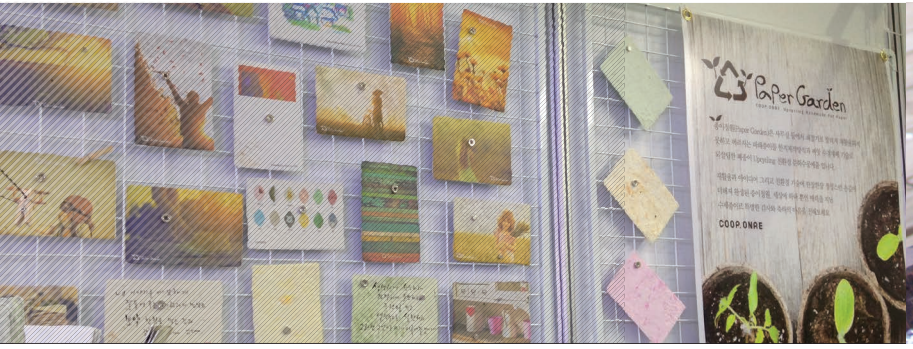
지역을 살리는 가치

전통 한지에 대한 지역 전통을 살리면서 지역민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온고을’ 전통 살리면서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상품

우리나라에서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소비하는 종이는 170kg, 한 해 동안 버려지는 폐지만 해도 무려 12톤에 달한다. 쉽게 쓰고 버리는 종이 1톤을 재활용하면 나무 20그루를 살리고, 물 28톤, 이산화탄소 500톤을 줄여 지구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한때 생명이었던 종이를 재활용해 생명을 품은 새싹으로 재탄생시키면 어떨까? 폐지로 만든 수제 씨앗카드 ‘종이정원’을 개발해 친환경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는 협동조합 ‘온리(ONRE)’의 이야기다.

지난 2012년 12월 전북 전주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된 온리는 어디에서나 나오는 파쇄종이를 재활용해 환경을 지키고, 전통 한지 기술을 응용한 작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기업명에는 전주의 옛 지명인 ‘온고을’을 ‘되살린다(RE)’는 의미를 담았다.



김명진 온리 이사장은 “전주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지가 됐지만, 지역의 전통을 살리면서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상품을 찾기 어려웠다”며 “지역의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고민하다가 새싹이 자라는 수제카드를 떠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나무 베서 화학물질로 만든 종이, 버리지 말고 ‘새활용’

온리는 박스, 신문지 등 한 번 사용하면 버려지는 파쇄 종이를 모아 전통 한지 제작 방식으로 되살림한다. 지역의 예술가들이 디자인한 작품을 입히고, 수경재배 기술로 키운 씨앗을 심어 완성한다. 김 이사장은 “기증받은 폐지를 불려 종이를 뜨고 씨앗을 심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돼 카드 한 장을 만드는데 3주 이상 걸리지만, 대량 생산으로 흉내 낼 수 없는 단 하나의 제품이 완성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 종이정원은 색상·무늬·질감이 전부 다르고, 특수 친환경 잉크로 인쇄해 물에 넣어도 지워지지 않으면서 독성이 적다.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에게 카드 속 메시지로 마음을 전한 뒤, 카드를 접시나 화분에 놓고 물을 흠뻑 적시면 2~7일 후 싹이 돋아난다. 겨자씨, 적콜라비, 청경채, 적양배

추, 자운영 등 풀의 3~4cm 자라나면 종이 그대로 흙에 옮겨 심을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종이정원을 통해 무엇보다 환경적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제지 기업에서 나무를 베서 접착제, 표백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해 종이를 만들고,

협동조합 온리
김명진 대표

인쇄 과정에서 잉크까지 더해지고 나면 폐지는 거의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면서 "파쇄 종이에 담긴 환경적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상기시키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온리는 상품을 생산 및 소비하게 하는 방식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공식 인증받기도 했다. 종이정원을 만드는 직원들은 전주 지역의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으로, 현재 직원 5명이 생산 및 판매에 참여하고 있다.

카드의 디자인에는 지역 작가의 그림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참여한 '글꼴유랑단'의 캘리그라피를 사용하는 등 특색을 담아냈다. 올해는 식물 세밀화를 그리는 작가 협동조합인 '한국보태니컬아트'와 한국의 야생화를 디자인해 출시하고, 지역 작가들과 함께 멸종위기 동물 시리즈도 선보일 예정이다. 카드 외에도 실내 인테리어로 활용 가능한 대형 액자나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수제도자기 등을 만들어 함께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경영난으로 오프라인 매장 철수 →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기대'

최근 경영난으로 서울, 전주 등에서 운영하던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한 온리는 온라인을 통해 판로를 개척할 기회를 찾고 있다. 최 이사장은 "매장이 없는 지역의 기업으로서 크라우드펀딩에 특히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연령의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실제 온리는 앞서 크라우드펀딩의 힘을 경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비플러스'를 통해 모은 인내자본 투자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온리는 2016년 서울 북촌에 매장을 운영했지만 중국 사드 사태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해 매출에 타격을 입으며 큰 위기를 겪었다. 당시 여러 사회적경제 조직이 힘을 더해 펀딩 리워드 패키지를 꾸린 결과, 목표 금액 5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

김 이사장은 "폐업 이상으로 삶의 의지를 잃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는데,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움 덕분에 의욕을 되찾고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아직 경영난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매출이 회복된 단계는 아니지만,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다"며 의지를 다졌다.

향후 온리는 재정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판로와 마케팅 등 사업 모델 등을 구체화해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전한다는 목표다. 업사이클 제품이자 윤리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관련 산업이 발달한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소개할 계획이다.

설립연도
2012년

대표자명
김명진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25

홈페이지
www.cooponre.com

한 눈에 이해하는

협동조합 온리

대표번호
063-282-0028

대표메일
4u@cooponre.com

소셜 미션
사람·환경·전통·지역을 생각해
한걸음 다른 라이프스타일 창조

주요 사업
'종이정원'을 개발해 친환경
업사이클링 실천

구성원 수
5명

기업유형
인증 사회적기업

수제카드 1장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

3주

카드에서 움트는 씨앗 종류(겨자씨, 적콜라비, 청경채, 적양배추, 자운영)

5종

보유한 지식재산권 수(특허 3종, 디자인특허 1종, 상표권 2종, 서비스권 1종)

7종

결혼이주여성 등 일자리 창출 수

5명

크라우드펀딩 통해 모은 재무구조 개선 자금

5000만 원

수직정원으로 실내 공기정화

㈜알로하그린

실내 공기 개선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 건강함을 찾는데 기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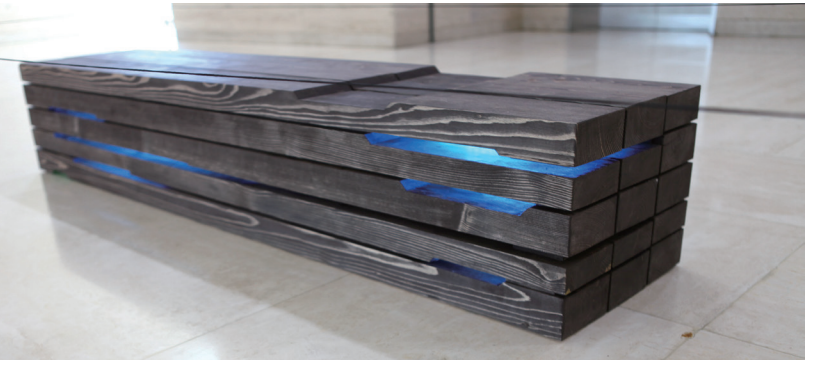
원예 가치 홍보

원예·화훼 분야에 대한 대중 인지도를 높여갑니다.

정부도 주목한 수직정원 실내 공기정화 효과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어요. 호주에서는 목수 관련 일을 하다가 왔고요. 김대영 알로하그린 대표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목수 일을 배웠다. 진로를 고민하던 그는 '원하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에 2014년 부산 감천마을에 사무실을 얻었다. 건축과 목공을 공부한 이력을 살려 가구 제작, 실내공간 디자인 일을 했다. 그는 "첫 사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돌아봤지만 직접 만든 가구가 실내 가구 공모에서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디자인이 가진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는 '실내공간 디자인'을 주제로 새로운 방향을 찾던 중 '수직정원'을 알게 됐다. 수직정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패트릭블랑(Patrick blanc)이 1988년 처음으로 제작하면서 생겨난 분야다. 관련 공부를 이어오던 그는 실내공기가 생각 이상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미국환경청에 따르면 실내공기 오염은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공기오염이라고 했을 때 미세먼지 같은 외부 오염을 생각하기 쉬워요. 실내 공기오염도 그에 못지않게 문제가 됩니다. 휘발성 유기화학물이 만드는 새집증후군이 대표적이에요. 공기청정기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완벽한 대안이 되기는 힘들고요."

2년 간 연구 끝에 탄생한 수직정원 '둥둥플로라'

그가 연구한 실내정원은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다. 정부는 최근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빌레나무 보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그는 수직정원에서 실내공간 디자인과 공기정화 기능을 확인하고 연구를 이어갔다.

"실내에서 자라는 식물은 다 가져왔어요. (수직정원 형태에서) 금방 죽는 식물, 관리가 다소 소홀해도 오래 가는 식물 등 분류를 거쳐 최적화된 식물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는 2년간 수직정원을 연구해 알로하그린 수직정원 '둥둥플로라'를 개발했다. 둥둥플로라 제작은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식물을 공수해오고, 이에 맞는 식물주머니, 물받이 등을 크기에 맞춰 제작한다. 과정을 거쳐 품질을 확보하고 배송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김 대표는 "둥둥플로라는 그림액자를 걸 듯 설치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함과 동시에 공기 정화도 가능하다"며 "실내에서 식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건강함을 되찾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알로하그린은 2년간 연구한 '둥둥플로라'로 특허출원을 받을 수 있었고, 세스코 공기질 측정을 거쳐 실내 공기정화 기능도 인증 받았다.

아직 생소한 수직정원, 시민들과 더 많이 만나고 싶어

“조화 아니에요?” 둥둥플로라를 처음 접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김 대표는 “일반적인 화분 개념이 아니다 보니, 의구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직접 증명할 길이 마땅히 없어 설득과 판매에 더딘 면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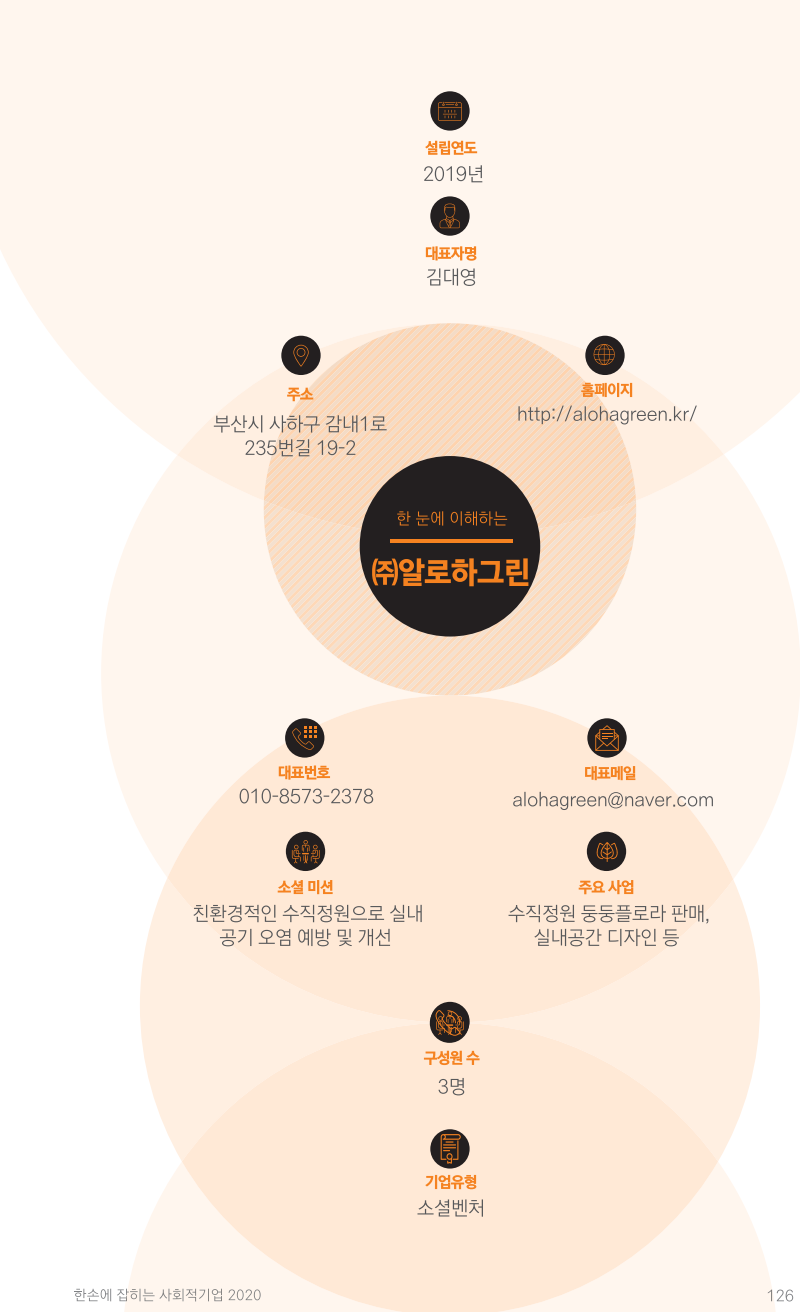
김 대표는 “제품 제작에만 신경쓰다보니 제품을 알리기 위한 작업들이 부족했다”며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수직정원과 실내공기 중요성을 알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로하그린은 최근 롯데백화점 본점에 입점해 소비자들에게 수직정원을 선보였고, 크라우드펀딩도 진행했다.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9기 과정도 수료중이다. 김 대표는 “친환경 제품인 수직정원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실내공기 오염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알로하그린은 부산 인근 지역 화훼단지에서 식물을 직접 가져온다. 알로하그린 기본 식물 구성 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식물 구성을 추가하기도 한다. 김 대표는 "수직정원 둥둥플로라에서 나아가 원예 시장 인지도 전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알로하그린
김대영 대표

“식물은 사람들이 찾는 가장 본능적인 소재에요. 산, 바다 등 자연을 찾는 게 인간 본능이듯, 집안에 식물을 둠으로써 마음에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보고만 있어도 치유되는 심리적, 기능적 측면이 있거든요. 식물 다루는 일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원예가치를 대하는 대중 인식이 개선될수록 사람들 일상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알로하그린도 원예·화훼 분야가 시민들 일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설립연도
2019년
대표자명
김대영
주소
부산시 사하구 감내1로
235번길 19-2
홈페이지
http://alohagreen.kr/
한 눈에 이해하는
㈜알로하그린
대표번호
010-8573-2378
대표메일
alohagreen@naver.com
소셜 미션
친환경적인 수직정원으로 실내
공기 오염 예방 및 개선
주요 사업
수직정원 둥둥플로라 판매,
실내공간 디자인 등
구성원 수
3명
기업유형
소셜벤처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2020

발행일 2020년 5월 8일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태평 2동 3440) 6~8층
발행인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연락처 Tel. 031-697-7700
Fax. 031-697-7853
www.socialenterprise.or.kr
취재·디자인 주식회사 이로운넷
02-467-2296
ISBN 979-11-956994-4-5(03330)

*이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책자의 내용과 활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간등록번호
11-B552745-000001-10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루트에너지

㈜베이비플래너

㈜스펠크리에이티브

㈜암흑

㈜상상

㈜코끼리공장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온리

㈜알로하그린

비매품/무료

0 3 3 0

9 791195 699445

ISBN 979-11-956994-4-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